



새 시대 질서를 세우는 배려

민수기 36:1-13 찬송 550장(구 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Ice-Breaker

지난 한 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경험들을 나누며 서로 마음을 여십시오.

민수기의 마지막 장은 슬로브핫의 딸들의 결혼 문제를 다룹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기업'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들 없이 죽은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27장) 민수기의 딸들은 그들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직면합니다.

말씀과 행동

1. 슬로브한 딸들의 상속 문제가 다시 이스라엘 사회의 큰 화제가 됩니다(1-4절)

- 1) 슬로브한 딸들의 기업과 광려하여 문제를 제기한 이들은 누구입니까(1점)?

- 2) 그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보완을 요구한 문제는 무엇입니까(3~4절)?

〈나눔 1〉 모세는 여인들의 사연(27:5)도, 지파 수령들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관행이나 전통을 앞세워 묵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린 지도자였고, 소수 의견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힘쓴 지도자입니다. 존경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서로 이야기해봅시다. 또 내게 돋움을 청하는 이들에게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도 나눠봅시다.

2. 모세는 지도자들의 이의 제기를 인정하며 조정안을 내놓습니다(5-13절).

- 1) 슬로브핫의 딸들의 권리와 존중하면서 지파의 기업 손실도 막기 위한 중재안은 무엇입니까(5-7절)?

- 2) 기업을 상속받은 팔들은 동일 지파 내에서만 결혼하도록 규례를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8점)?

- 3) 슬로브하의 딸들은 모세의 조정안에 대해 어떻게 반응합니까(10-12절)?

〈나눔 2〉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유익이 충돌할 때 그 갈등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갑니까? 어떻게 소통하며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 실례와 함께 각자의 대안을 이야기해봅시다. 무엇보다 더 나은 방식(대안)을 찾기 위해 늘 내 생각을 바꾸고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눔 3〉 갈수록 공동체 의식이 무너져가는 시대에 나는 개인적인 욕심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까? 갈수록 자신과 가족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세태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심화하는 이기주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한국 기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갖되, 공동체 의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서로 조율하며 존중하는 정신을 잊지 않게 하소서

공동체 기도

1. 순마다 생명력이 있어, 날마다 성장하는 공동체 되도록
2. 공동체 환우들을 위하여
3. 교육관 건축이 은혜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4. 다음세대(교육부)가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5. 뉴저지초대교회 선교사역을 위하여
6. 박형은 담임목사님 뉴저지초대교회의 사역과 가정,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7. 제자반, 일대일 양육, 일터사역 등 장년 교육 프로그램이 은혜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One Heart New Man

한 새 사람을 이루자

새 시대 질서를 세우는 배려

민수기 36:1-13

알리는 말씀

1. 2017년 교회 표어는 'One Heart New Man', (한 새 사람을 이루자)입니다.
2. 순예배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2~3곡 찬양/대표기도/성경봉독/순나눔
3. 공동체 야외예배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4. 가족 순 예배 교육
 - 일시: 9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 / 장소: 2층 유년부실
5. 순모임 후에 온라인을 통해 순보고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번째 모임의 순교재는 매달 2째주일 로비에 배치됩니다.
7. 순마다 정한 Just One Step Up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바랍니다.
8. 디아스포라 사역: 순원들 중에 교회를 떠나 타 주나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담당 목회자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